

# <권장군전> 이본 연구

윤 경 아\*

## I. 서 론

<권장군전>은 혼사 과정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전개되는 고전소설이다. 외동딸을 둔 부유한 집안에서 재모가 출중한 사위를 얻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정의 혼사 과정을 심각한 갈등구조 속에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골계적 구도 속에서 재치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본은 총 6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각 이본은 이야기 전개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삽입화소의 출입에 따라 작품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본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작품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는 설성경과 유재일<sup>1)</sup>의 해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성경은 <권장군전>을 혼사 갈등과 그에 대한 극복을 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며, 예비장인의 어리석음과 예비사위의 명석함이 대립을 이루면서 전개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인물들이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조선시대 사회의 병폐와 한 가정의 혼사결정의 과정에 나타난 모순”으로 보고, 이 모순을 주인공의 혼사실현과정을 통해 재치있게 대립시키고 해소시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그리고 “간악한 인물의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설성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유재일, 「<양신랑전> 해제」, 『열상고전연구』 창간호, 열상고전연구회, 1988, 317~321면.

패배와 지혜로운 인물의 승리라는 긍정적 윤리의식의 고취를 내세운 전통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규방소설로 범주화하였다.

그런데, 유재일은 <양신랑전>을 두고 주인공이 구원자의 도움으로 혼사장애를 이겨내어 혼례를 치루고 과거에 급제한 뒤 전승(戰勝)의 공을 이루어 입신양명하는 전형적인 창작 영웅계 소설로 보았다.

이상의 해제에서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규방소설로 보기도 하고, 전형적 창작 영웅계 소설로 보기도 하는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본의 양상을 검토하여 선본(善本)을 가린 후, 작품의 서사적 특징과 향유층의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장군전>은 아직 이본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6종의 이본은 이 작품이 일정 정도의 향유층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특징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글소설의 특징적 면모의 한 자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글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본비교

남아있는 이본 6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본(구 김동욱 소장본) <권장군전>, 단국대학교 퇴계도서관 소장본(구 이가원 소장본) <양신랑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양탕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권홍양인전>,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소장본(이능우 기증본) <권홍랑전>, 박순호 소장본 <권신랑전>이다.

### 1. 서지사항

#### ① <권장군전>

1권 1책에 36장 72면이며, 각 면 12행, 각 행 약 18자 정도의 한글 필사본이다. 표제에 ‘權將軍傳’이라고 되어 있으며, 권수제가 ‘권당군전 양신랑

전’이라고 되어 있다.

② <양신랑전><sup>2)</sup>

1권 1책에 38장 76면이며, 각 면 9~10행, 각 행 약 15자 정도 분량의 한글필사본이다. 표제는 ‘兩新郎傳 單’이라고 되어 있으며, 권수제는 ‘양신랑전’으로 되어 있다. 두 편의 기사 <백화당야연가>와 <우백화정가>가 병기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어 필사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필사시기에 대해서 유재일은 1826년 또는 188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필자 또한 이 작품이 19세기 이전 작품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병술 원월 초칠일 시작하여 십칠일 중서하오나 글씨 너무 아니 느니 타인 보실까 참괴하얌. 정소저 필적이라. (\*필자의 현대어역. 이하 동일)

③ <양랑전>

1권 1책에 32장 64면이며, 각면 10행 14자 정도 분량의 한글필사본이다. 표제는 ‘兩郎傳’이며, 권수제는 ‘양신랑전 권지일’이라고 되어 있다. 서사 전개 및 서술양상에서 <양신랑전>과 거의 동일한 이본이며, <백화당야연가>와 <여자탄>이 합철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어 필사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필사시기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체에 따르면 갑진을 1904년으로 보고 있으나, 1844년도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본다. <양신랑전>과 필사기까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이본 중 하나가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진 원월에 시작하여 을사 원월 초구일에 필서하나 글씨 너무 아니 느니 타인 보실까 참괴 부끄럽사오이다. 박소저의 필적이라.

---

2) 『열상고전연구』 창간호에 수록된 복사본 이용.

④ <권홍양인전><sup>3)</sup>

1권 1책에 19장 38면이며, 각 면 14행, 각 행 17자 정도 분량의 한글필 사본이다. 표제는 “권홍양인전”이며, 권수제는 “권홍양인 전나라”라고 쓰여 있다. <한글서간>과 <유충렬전>이 합철되어 있다.

⑤ <권홍량전><sup>4)</sup>

1권 1책에, 38장 75면이며, 각 면 10행, 각 행 14자 정도 분량의 한글필 사본이다. 표제는 ‘權洪郎’으로, 표지에 제목을 쓴 종이를 덧대어 붙였으며, 권수제는 ‘권홍량 전’으로 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다.

이 책이 유식하지는 못하지만 적절한 때 한번 보고 웃을 만하기로 임부인이 짧은 글지식과 서투른 글씨로 대강 기록하니 여러 부인들은 한 번 보시라. 글씨 못썼다고 책하지는 말아 주시오.  
갑인 윤월 구일 야 임부인 필서라.

⑥ <권신량전><sup>5)</sup>

1권 1책에 18장 36면이며, 각 면 14행, 각 행 17자 정도 분량의 한글필 사본이다. <지선전>과 <장화홍련전>이 합철되어 있다.

---

3) <권홍양인전>은 『고전소설이본목록』에 없는 자료로 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당시 영남대학교에 계실 때 열람 기회를 주신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옥영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 표지는 하얀 작은 원을 이어 마름모꼴 사각형을 규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각각 보랏빛 꽃문양이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을 좋아하는 여성의 소장품이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소설 내용이 적힌 종이는 크게 세 가지다. 판심에 ‘漢城裁判所’가 찍힌 종이, 판심은 비어 있고 판 왼쪽 하단에 ‘鎌田製’가 찍힌 일본 종이, 그리고 연필로 외곽선을 그린 楮紙다. 표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필사한 종이는 있는 것들을 짜깁기한 듯하다. 어떤 것은 두 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서 만든 것도 있다.

5)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3권에 영인된 자료 이용.

## 2. 내용분석

이들 이본은 모두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구조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서술상의 차이가 간간히 보이고 있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본에 따라 고유명사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본간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술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차단락을 정리하여 단락별로 특정 삽화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 1) 순차단락

- 가. 이정은 신라 사람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가업에 힘써 부유하다.
- 나. 이정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이 있으며, 친척들의 입양 권유를 물리친다.
- 다. 친구 김의를 중매삼아 권훈과 정혼하여 혼일을 중춘 맹일로 잡는다.
- 라. 다른 친구 황안이 권훈을 모해하자, 이정은 권훈에게 퇴혼하고, 황안이 추천한 홍현경과 정혼하여 혼일을 중춘 맹일로 잡는다.
- 마. 혼례일 전날, 홍현경에 이어 권훈도 당도하여 이정 측은 혼란에 휩싸인다.
- 바. 권신량의 숙부는 퇴혼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돌아가고, 권훈은 거짓 배앓이를 하여 이정이 마련해 준 집에 머무른다.
- 사. 꿈속에서 도사의 전언을 통해 이소저와 부부연분이 있음을 확인한 권훈은 이정의 조카아이를 통해 이소저에게 서신을 전한다.
- 아. 권훈은 서신을 전해주고 온 조카아이를 통해 이소저의 처소를 확인하여 잠입을 감행한다.
- 자. 이소저를 붙들고 설득하며 밤새 이소저의 침소에 머문다.
- 차. 다음날 아침 이소저의 방안에 있는 권훈을 발견한 집안 사람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른다.
- 카. 권훈을 사위로 맞이하고, 홍현경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간다.

타. 권훈은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입신양명하고, 부부는 백년해로한다.

## 2) 단락별 이본비교

‘가 단락’부터 ‘마 단락’까지는 이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다가 ‘바 단락’부터 ‘타 단락’까지는 권훈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이다. 전반적인 서사전개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위기 묘사 및 심리상태에 대한 서술 정도, 대화장면의 존재여부 등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sup>6)</sup>

‘가 단락’에서는 여주인공의 부친인 이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정은 신라 경사(서울)에 살고 있으며,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망 있는 집안의 후손으로 관찰사를 역임하던 중 부인과 의논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가업에 힘써 재산을 일군 인물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정의 부친인 이한을 소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장군전>과 <권홍랑전>이 친밀성을 보이고 있다. <권장군전>과 <권홍랑전>에서는 이정의 부친인 이한을 소개하고 있으며, <양신랑전> 등은 이정의 집안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다는 정도로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간략한 서술은 일종의 상투적 표현으로 문맥 연결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장군전> 등에서 이정의 부친 이한이 당나라에 공업을 세워 임금인 이한을 공경하고 이한의 죽음을 슬퍼한 이야기와 이한이 죽은 후 이정에게 관찰사를 시킨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됨으로써 사실감을 높여주고 있다.<sup>7)</sup> <권신랑전>은 도입부가 가장 축약되어 있어 명문의 후예인 이정이 벼슬에서 물러났다고만 서술하였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인과의 대화 장면조차 생략되어 있다.

‘나 단락’에서는 이정의 외동딸 이소저에 대한 묘사가 서술되는데, ‘침어 낙안지용(侵魚落雁之容)’에 ‘폐월수화지태(廢月羞花之態)’의 외모에 시서(詩書)를 달통하고, 유한정정(幽閒貞靜)하면서도 빙정요라(氷貞纒蘿)한 숙덕을

6) <양랑전>은 <양신랑전>과 서사전개 및 서술양상이 동일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7) 신라라는 시대적 배경은 작품 도입부와 후반부에서만 잠깐 언급될 뿐, 내용 전개 상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겸비한 여성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정은 이러한 딸을 애지중지하며 재상가의 구혼도 물리치고 훌륭한 사위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이정에게 친척들은 양자를 입양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양자 입양에 대한 이정의 반대 의사, 현명한 사위를 얻어 의지하고 싶은 소망, 이에 대한 친척들의 훈계 등이 이본별로 큰 차이 없이 진행된다.

‘다 단락’에서는 이정의 친구 김의가 방문하여 남양에 사는 권훈을 사위로 중매하게 된다. 친척들의 입양 권유에 불쾌했던 이정은 친구 김의에게 중매를 부탁하고, 김의는 권훈의 부친인 권장군에게 이정의 가세와 이소저의 현숙함을 이야기하며 혼인 의사를 묻는다. 권장군은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하고, 이정 집에서는 혼인날을 중추 망일(8월 15일)로 정한다.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다고 판단한 이정은 입양할 의사를 그치는데, <양랑전>과 <권신랑전>에서는 이에 대해 생략되어 있다.

한편, <권장군전>만 이 부분에서 권훈의 재모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권훈은 영웅적 자질과 강산의 정기를 박은 듯한 외모를 갖추었는데, 그 부모는 권훈에게 상적할 만한 여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때 마침 김의가 와서 권장군에게 이정의 부탁으로 왔노라고 이야기하며 통혼하자, 이미 이소저의 현숙함을 소문으로 전해들었던 부친은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한다. 다른 이본에서는 권훈의 재모에 대한 서술이 없고, 김의와 권장군의 대화가 한두 줄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권장군전>이 갖는 의미가 크다.

권훈의 영웅적 자질을 이 부분에서 서술함으로써 ‘다 단락’에서 이정의 또 다른 친구인 황안이 권훈을 모함할 때 그것이 거짓된 정보임을 미리 알 수 있으며, 황안의 농락에 휘둘리는 이정에게 안타까운마음이 들게 된다. 이는 권훈의 영웅적 자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정이 시기심이 많아 이정의 부유함과 권훈의 뛰어난 재능이 결합하는 것을 훼간한 것이라고만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건의 진실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황안의 권훈에 대한 평가 및 황안과 이정의 대화도 다른 이본에 비해 <권장군전>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비교적 상세한 <양신랑전>만 하더라도

도 “성도 불순하고 방자하여 방탕한 인물이라” 정도로 되어 있는 반면, <권장군전>에서는 “불초방탕하고 간협간교하니, 그 부모는 지금은 뉘우치고 제 어찌 못하고 있다”라고까지 하여 그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패악무도한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권장군전>에서는 황안의 말을 들은 이정이 기가 막혀 다급해하면서, 자신이 집밖에 나간 지 오래되어 좋은 사윗감을 알아보기 어려우니 부디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이 좋은 사위를 직접 고르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한 이본이 없다는 점에서 <권장군전>은 같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대화, 심리, 이유 등을 상세히 그려내려고 한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권장군전>이 다른 이본들과 차별되는 또 하나의 대목은 이정과 부인의 대화 장면이다. ‘가 단락’에서 이정이 벼슬에서 물러나면서 부인과 의논하던 장면은 다른 이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혼인을 번복한 후의 이정과 부인 위씨의 대화는 <권장군전>에서만 보이고 있다.

황안을 통해 양정에 사는 흥현경을 사위로 맞기로 한 이정은 부인에게 권가에 퇴혼하고 흥가와 혼인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한다. 부인은 그러한 결정 과정이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의가 황안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가 혼인 번복은 신중히 해야한다고 책망한다. 이에 이정은 이미 권가에 퇴혼하고 흥가에 통혼하러 갔으니 이제와서 어쩔 수 없으며, 흥가의 부친이 훌륭한데 그 자식 또한 훌륭하지 않겠느냐며 부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와 같은 부인의 우려는 뒤이은 김의의 책망과 함께 이정의 우둔함을 현격히 드러나게 한다. 이정이 벼슬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명했을 때 부인은 이정의 의사를 옹기 여기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숙한 아내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권장군전>에서는 이러한 부인 위씨의 현숙한 모습에 진중한 태도까지 보여주는 대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부인 위씨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마 단락’에서는 흥현경과의 혼일도 권훈과 마찬가지로 중추 망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혼인 전날 흥현경이 도착하고 뒤이어 권훈도 당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정은 깜짝 놀라고, 곧 이어 권훈의 집으로 퇴혼 소식을 알



리러 가던 노복이 중간에 병이 들어 퇴혼소식을 알리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다. 친척들은 이미 퇴혼한 집안 사람이니 돌려보내라 하는데, 이정은 자신의 과오로 일이 이에 미쳤다고 말하며 이미 날도 늦었고 하니 연유를 알려 주고 처소를 마련해 주면 자신들이 스스로 무류해져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처소를 정해준다. 이 부분에서는 이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양신랑전>에서는 ‘머리를 허위며 어쩔 줄 모르는’ 이정의 모습이 서술되어 자못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권홍랑전> 등은 이정이 기절하고 속병이 복발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 단락’에서는 퇴혼사실을 알게 된 권훈의 숙부가 화가 나서 돌아가고, 권훈은 피병을 부리다가 밥 먹고 쉬다가 가야겠노라며 이정이 마련해 준 집에 남게 된다. 권훈의 숙부는 이정의 신의없음과 남들의 치소(嗤笑)를 받게 된 것을 통한해하며 빨리 되돌아가고자 하지만, 권훈은 혼인이라는 것은 다 하늘의 명에 달렸으며, 치소를 받게 되는 것은 혼인 번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정이 자기네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를 내며 돌아가자고 재촉하는 숙부에게 며칠 동안의 행로에 몸에 병이 났다며 피병을 부리고는 밥도 먹고 쉬기도 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을 테니 먼저 출발하시라고 부탁한다. 이 단락도 전반적으로 이본간에 유사한 서술을 보이고 있는데, <권홍랑전>이 조금 더 세밀하다. 먼저 출발한 숙부에게 자신을 지키던 노복들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된 상황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로써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보낸 후 권훈은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된다.

‘바 단락’에서는 혼자 남게 된 권훈이 꿈속에서 도사의 전언을 통해 이소저와 부부연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훈은 도사와 문답을 나누던 중 도사가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신선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손가락에 매어진 홍사가 이정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정의 배약(背約)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 도사는 이정에게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고, 일은 사람이 행한다며 결국 권훈이 직접 움직여야 함을 암시하고는 청의를 입은 동자에게 도움 받으라 하고는 사라진다.

<권장군전>, <양신랑전>, <권홍양인전>이 가장 자세하면서도 유사한 서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권홍양인전>이다. 앞 단락까

지는 <권홍량전>이 보다 자세한 서술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바 단락’부터는 <권홍양인전>이 문맥 흐름의 끊김 없이 뚫진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권훈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동자를 발견하고는 동자가 이소저의 사촌동생임을 확인하고는 그를 통해 이소저에게 편지를 전한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훈이 자신을 소개하고는 이소저가 이미 권씨 집안과 혼약을 하고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집안과 혼인하게 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창녀라도 한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옳은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며 준절히 꾸짖는다. 하지만 이러한 질책 후에는 은근한 화유를 통해 이소저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혼인은 백년대사이고 이로 본다면 한번의 웃음 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며 한밤중에 방문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끝맺고 있다.

이본에 따라 좀더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경우도 있는데, <권홍양인전>에서는 ‘꽃을 사랑하는 나비와 향기를 탐하는 미친 벌이 구름 모이듯 하여 허다한 사람이 다투어 이르기를 이 아무개의 사위와 아무개의 장부 되리라’ 하고, ‘혹 벗들이 서로 만나 가는 곳을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오늘 밤에 누구 딸이 내게 허하리라 이는 창녀의 할 바이며, 사족의 절이 아니라’ 하며, 혼인 전날 두 예비신랑이 당도한 상황에 빗대어, 저장거리에서 이정의 외동딸 사위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권훈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바 단락’부터 상세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어, <권홍양인전>이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인 결연 부분에 치중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문맥이 매끄럽고 상세하게 서술되었던 <권홍량전>은 오히려 문맥이 끊기는 부분이 생긴다. 바로 권훈이 꿈에서 깨어난 후, 청의를 입은 동자(이정의 조카)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다. 다른 이본들에서 권훈은 잠에서 깨어 문을 열고 밖을 보게 되고, 마침 권훈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틈에서 청의를 입은 동자를 발견하게 되어 부르게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권홍량전>에서는 권훈이 꿈에서 깨어 바로 동자와 대면하게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권훈이 동자를 보내면서 이소저의 태도까지 살펴달라고 당부하는 장면 또한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홍량전>

이 이 단락에서는 앞 단락보다는 섬세하지 않은 서술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단락’에서는 동자가 이소저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를 읽은 이소저가 황망해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두 예비신랑의 당도 후, 그 실체를 알게 된 이정 측 사람들은 모두 흥현경의 인물됨을 추무하다고 비난하고, 권훈의 품모가 자못 훌륭함을 감탄한다. 그리고 이소저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하면서 이소저를 불쌍히 여긴다. 부인 위씨는 속상해서 한탄하고, 이정은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며 부인과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여 이소저가 알지 못하도록 신경 쓴다. 하지만 유모와 시비의 탄식을 통해 이소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이본에 따라 이소저의 심리가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고 있어 주목된다. <권신랑전>에서는 이소저의 심리상태가 서술되지 않고, <권장군전> 등에서는 이소저가 사실을 알고서 체념하며 자신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만 흘리며 탄식한다. <권홍랑전>은 약간 특이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소저는 이미 부친의 그릇된 반복으로 인해 부끄러워 자진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편안한 기색으로 시좌(侍坐)하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온다. <권홍랑전>의 이러한 서술은 ‘열녀불경이부’ 정신에 투철한 이소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자가 권훈의 편지라면서 이소저의 치마에 던지는데, 이 때 이소저는 크게 놀라며 동자를 꾸짖는다. 하지만 이소저는 부친이 알면 어찌되겠느냐고 책함으로써 ‘예(禮)’ 그 자체보다도 부친의 화를 더 두려워한다.

권훈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경위 부분에서 <권장군전>이 다른 이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이소저가 잠깐 생각해보다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권훈의 편지를 읽어보게 되는데, <권장군전>에서는 이소저가 읽으려 하지 않자, 동자가 마음이 촉급하여 편지 읽어보기를 간청하기에 읽게 되는 것이다. 즉, 동자의 권유에 따라 읽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권장군전>에서는 이소저가 편지를 읽기 전, 시녀를 물리도록 하여 주변적 상황들을 세심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소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호기심에 권훈의 편지를 읽어본 것이 아니라, 동자가 간청하여 읽어보게 한 서술은 <권장군전>이 다른 이본에 비해 좀더 도덕적 색채가 강한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권장군전>이 다른 이본에 비해 좀더 도덕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본들에서 볼 수 없는 이소저의 섬세한 당부 때문이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이소저가 권훈에게 돌아가는 동자에게 편지를 삼가 받들어 보았노라 전하라고 하는 정도인데, <권장군전>에서는 전했다고만 할 뿐 그 이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외간남자에게 자신의 행실이 전파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사대부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 색채는 <권홍량전>에 이르면 사라져버리고, 이소저는 동자가 편지를 갖고 오자 다른 이본들처럼 동자를 꾸짖지만 내심 기뻐하였다고 이소저의 속마음을 밝히고 있다. 석화(石化)된 듯,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존재감 없던 이소저가 훌륭한 재모를 지닌 인물로 칭송되는 외간남자의 편지를 받고 내심 기뻐하였고, 돌아가는 동자에게 잘 받아보았다고 전하라는 이 두 마디로 <권홍량전>의 이소저는 생동감 있는 인물이 된다.

‘아 단락’에서 권훈은 서신을 전해주고 온 동자를 통해 이소저가 편지를 읽었음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동산에 올라 이정희의 집 내부를 탐문하여 이소저의 처소를 알아내고는 아이를 돌려보내고서 잠입을 감행한다. 이 단락에서 가장 문맥이 매끄럽고, 분위기가 잘 묘사된 이본은 <권장군전>이다. 아이를 구슬러 한밤중에 동산에 오른 권훈은 짐짓 이정희의 집 담장이 화려하니 내부는 더욱 화려하겠다며 은근히 집 내부를 묻고, 동자는 당연히 화려하다며 맞장구치고는 빙성당이 가장 화려하다고 대답한다. 권훈이 빙성당에는 누가 있느냐고 물으니, 동자는 이소저가 머무는 곳이라고 알려준다. 다른 이본들에서 담장 내부가 화려하다고 하면서 권훈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소저의 처소인 빙성당이 가장 화려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대화 장면이 세밀하다.

‘자 단락’에서는 빙성당 안으로 들어간 권훈이 이소저와 실랑이하며 설득한다. 모든 이본에서 이소저가 권훈의 등장에 대경실색하며 놀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장군전>에서는 이소저가 주위를 둘러보아 유모도 시비도 없음을 깨닫고 직접 창을 단으려다가 권훈의 제지로 실패하는 상황이 서술되고 있어, <권장군전>이 매 상황마다 좀더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거처에 한밤중에 잠입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설정은 그리 낯설지 않다.<sup>8)</sup> 남자가 여자의 내밀한 공간에 침입하되 친압하지는 않고 여성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여성은 남성의 침입 자체가 비례임을 들어 빨리 방 밖으로 나갈 것을 재촉하면서 재미를 촉발한다.

‘차 단락’에서 이튿날 아침 이정의 집안 사람들이 이소저의 방안에 있는 권훈을 발견하고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는데, 지금까지의 심각한 국면과는 판이하게 희극적으로 전개된다. 먼저, 이소저의 모친 위씨가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밖에서 이소저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늦잠을 자는 줄 알고 방문을 연 모친은 훗칠한 대장부가 방안에 앉아 있어 깜짝 놀라며 소리친다. 집 안에서 사람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니 사랑에 있던 이정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며 도둑이 들었느냐고 묻는다. 이정에 대한 회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정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세가 있다고 하면서 노복들과의 문답을 동문서답으로 만들어버리며 웃음을 자아낸다. 노복은 ‘소저 침소에 변이 났다’, ‘권훈이 방 안에 있었다’고 이정에게 고하는데, 이를 잘못 알아들은 이정은 ‘도적이 들었나’, ‘신랑이 죽었나’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 결국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노복은 조용히 서 있고, 화가 난 이정은 이들을 꾸짖고 내당으로 들어온다. 부인이 ‘한 딸을 두었다가 오늘 천고 없는 일을 당할 줄 뜻하였으리오’라고 탄식을 하자,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이정은 부인이 딸 시집보내기가 속상해서 그런 줄 알고 웃으면서 ‘딸 둔 어미가 일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 무슨 변이라고’라고 대답한다. 화가 난 부인이 권훈이 병성당에 들어왔다고 소리쳐 말하자, 사위가 어디 갔느냐며 사위사랑 장모라 하니 대접 잘하라고 답한다. 다시 부인이 ‘권훈’이 ‘딸 방’에 들어왔다고 소리쳐 말하니, 이정은 약간 알아듣되 잘못 알아들어서 ‘권훈’이 아무리 ‘딸과 방불’한들 어찌겠느

---

8) <권용선전>에서는 남자 주인공 권용선이 오소저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오소저가 거처하는 내실에 침입하여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경우가 있다.

나며 맞받아친다. 화가 난 부인이 귀먹은 들 이토록 심할 수가 있는가 하니, 마침 그 소리는 알아듣고는 ‘흔레 치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통까지 친다.

결국 사람을 시켜 글로써 상황을 전달하니 그제서야 놀란 이정은 친척들과 의논하여 권훈을 사위로 맞이하기로 한다. ‘카 단락’에서 예를 갖추어 흔레를 치루는데, 이정 부부는 권훈의 품모가 남달리 뛰어나 흡족하지만 하다. 그런데 <권장군전>은 초례를 치루는 날 밤 권훈과 이소저가 대면하는 장면이 다른 이본들과 다르다. 초례를 치루는 날 밤 권훈과 이소저의 대면 장면은 <권장군전>과 <양신랑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양신랑전>에서는 권훈이 이소저를 바라보며 흡족해하고, 이소저는 부끄러워하고만 있다. 그런데 <권장군전>에서는 권훈이 이소저에게 전달밤의 무례를 용서하라고 청하고, 이소저는 자신이 능욕당한 사실을 통한해하며 엄정한 낯빛을 보인다. 이에 권훈은 다시 이소저를 회유하는데, 이소저는 자신의 부친이 비록 간인에게 속아 일을 그릇할 뿐 했지만,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권훈은 이소저를 다시 한번 위로하며 용서를 구하고서 드디어 화락한 가운데 합방하게 된다. 다른 이본들에서 권훈과 이소저가 아름다운 한쌍으로만 형용되고, 둘 사이의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전개가 후반부로 가면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권장군전>에서는 갈등적 요소를 초례를 치루는 날 밤에 표출하고 해결함으로써 한결 흥미적 요소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혼사장에주지’를 다루는 장편소설에서는 혼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혼인 후 부부갈등이나 용서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의 갈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sup>9)</sup> <권장군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소략하나마

9) 송성옥은 이상택의 논의를 이어 대하장편소설들에 나타난 ‘혼사장에주지’를 중심으로 고전소설사에 있어서의 ‘혼사’가 얼마나 다단한 갈등양상을 제기하는지를 밝힌 바 있다. 즉, 혼사 과정뿐만 아니라 혼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혼사 이후에도 새로운 갈등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길연도 <창관호연>, <옥원재합기연>, <원월회맹연> 세 작품을 중심으로 ‘용서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여 향유층위에 따라 다른 향유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혼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양상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상택, 「<명

하나하나 짚어 풀어줌으로써 다른 이본에 비해 좀더 소설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양상은 <권장군전>에서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튿날 이정의 부인 위씨가 사위 권훈을 불러 자기네 잘못으로 혼인이 어그러질 뻔했지만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말고 아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이본들에서 여전히 새 신랑 권훈을 흡족히만 여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된다. <권장군전>에서는 혼사과정에서의 실수가 한바탕 웃음거리로 회자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만한 문제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창관호연>에서 한소저는 부친의 욕심 때문에 혼인이 번복되고, 우여곡절 끝에 원래 정혼자인 장희와 혼인하는 과정에서 장희의 핍박을 받는다. 장희는 장인의 배신 때문에 한소저를 구박하게 된 것인데, 이는 결국 부부갈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혼인 번복은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소저의 지적과 부인 위씨의 걱정이 상당히 타당하고 온전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타 단락’은 혼인 후 권훈과 이소저가 백년해로하며 살았다는 결말 부분이다. 권훈이 이소저와 혼인을 함에 따라 흥현경은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권홍양인전>에서는 흥현경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권훈의 숙부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권훈의 부모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양신랑전>과 <권장군전>뿐이다. <권홍양인전>, <권신랑전>, <권홍랑전>은 권훈의 활약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 이소저와 백년해로하였다는 수준에서 큰 차이 없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

<주보월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2;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단위담의 전개양상과 결합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웅서대립담 연구」, 『고소설 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양신랑전>에서는 <양신랑전>에서는 권훈의 편지를 통해 권훈이 이소저와 혼인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안 숙부가 이정 집으로 가서 권훈의 무례함에 용서를 빌고, 이정은 권훈의 특출함을 기특해하며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여준다. 뒤이어 이소저가 남양으로 가서 신부지례(新婦之禮)를 올리고, 시부모를 효로써 모신 이야기 등이 간략히 서술된다. 호부시랑에 제수된 권훈은 부친 권장군과 함께 임금께 배알하고, 모든 가솔을 이끌고 경사로 오고 이정은 권훈의 정착을 도우며 권훈에게 의탁한다. 신라 장수가 되어 백제를 공격하여 승리한 권훈은 병부상서가 되고, 이소저와 5남 2녀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

<권장군전>에서는 권훈을 기다리던 숙부가 노비를 통해 권훈이 혼례를 치루었음을 알게 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간다. 권훈이 본가로 돌아와 일의 전말을 자세히 고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하고 권훈을 칭찬하는 상황이 서술된다. 그리고 다시 택일하여 신부를 본가로 데려와 인사를 시키는례를 행하니, 시부모가 사랑하는 정이 컸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관독이 쉽지는 않지만, 5남 2녀를 낳고 부부금슬이 좋은 상태에서 백년해로하며 즐겁게 살았다는 결말을 갖고 있다.

### 3. 선본(善本) 및 작품 성격

각 이본별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권신랑전>, <권홍양인전>, <권홍랑전>은 부분적으로 생략된 삽화 및 서술이 많기 때문에 선본(善本)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권신랑전>의 생략이 가장 심하다. 세 이본은 생략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 10) 물론 세밀하게는 이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권홍양인전>에서는 권훈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소저와 백년해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권신랑전>에서는 권훈이 신라장수로서 김유신을 도와 백제를 치고 신라통일의 수훈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권홍랑전>에서는 신라장수로서 당병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는 수준에서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권훈의 성공담과 이소저와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된 것이기에 권훈측까지 세심하게 서술한 <양신랑전>, <권장군전>과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우열을 논할 수는 없고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권홍량전>은 <권신량전> 및 <권홍양인전>과 달리 문맥이 매끄러운 편이며, 여성의 필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작품을 향유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표지 및 속지 등을 놓고 보면 가장 후대에 만들어진 이본으로 추정되기에 후대적 변모를 보여주는 이본으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문맥, 시기, 장면에 대한 서술 면에서 <양신량전>과 <권장군전>이 가장 선본(善本)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이본 모두 전반적으로 생략된 서술부분이 적고, 특히 후반부는 다른 이본과 달리 급작스럽게 끝나지 않고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순차단락을 정리하여 서술양상을 비교 검토한 결과, <권장군전>이 각 장면에서 가장 충실하고 께진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이본에는 없는 삽화 부분으로 ‘가 단락’의 이정의 부친 이한의 공적, ‘다 단락’의 권훈의 영웅적 자질과 아름다운 외모, ‘라 단락’에서 부인 위씨의 충고, ‘아 단락’과 ‘자 단락’에서 이소저의 ‘예(禮)’에 따른 조심성, ‘카 단락’에서 권훈과 이소저의 대화와 부인 위씨의 부탁, ‘타 단락’에서 권훈의 부모 반응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이본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sup>11)</sup> 따라서 <권장군전>이 가장 세심하게 서술된 선본(善本)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듯하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작품이 과연 영웅소설인가, 규방소설인가 하는 점이다.

<양신량전> 등에서 권훈이 혼인 후 신라 장수가 되어 백제를 치는 공적을 세우는 영웅적 면모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 작품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권훈이 혼사장애를 극복하여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은 영웅소설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훈이 어떠한 상대방을 만나서 어떠한 지략을 써서

---

11) 물론 <권홍량전>, <권홍양인전>, <양신량전>에서 <권장군전>에 있는 삽화가 하나 둘씩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 들어간 경우는 없다.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영웅의 무용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 작품을 영웅소설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오히려 혼사장애 자체가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으며, 영웅소설이 되기에는 전쟁 장면에 대한 분량면에 있어서나 서술 양상에 있어서나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권훈이 나라에 공을 세우고 부부가 백년해로 하였다는 서술은 기나긴 혼사장애를 딛고 난 후의 후일담으로써 일종의 관습적 장치로써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작품은 영웅적 자질을 지닌 권훈이라는 인물이 피를 써서 아름다운 부인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한 규방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권장군전>의 서사적 특징

#### 1. 인물의 희화화

<권장군전>은 혼인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예비 장인의 어리숙함과 중매자의 농간, 그리고 예비 사위의 재치가 사건 전개 중심에 있다.

예비 장인 이정은 처음에는 명망 있는 가문을 이끄는 진중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는 동안 덕치(德治)를 펼치면서 관직에 욕심내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진다. 게다가 아들 입양을 권하는 대다수의 친척들의 논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훌륭한 사위를 얻어 노후를 기대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이정의 모습은 단호하다.

그런 이정이 막상 애지중지하는 딸을 위해 사위를 고르는 문제에서만큼은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구로부터 좋은 신랑감을 추천받아 혼사일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친구의 말에 혹하여 인륜대사인 혼인을 번복하는 경망스러운 결정을 하고 만다. 딸의 인생이 걸린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풍문에 의지하여 일순간에 판단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여 결코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정은 작품 초반에 청직한 인물로 서술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능

력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인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정은 <권장군전> 등의 이본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관직을 한 것이 아니라, 부친의 과업으로 임금의 사랑을 받아 황해도 관찰사까지 오르게 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본인 스스로 옥죄어 결국 자신이 잘못하면 선조까지도 옥을 먹게 된다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정은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좋은 사위를 얻고 싶다. 하지만 이정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에 영웅적 인물에 대한 정보에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은 ‘증지’로서 정사에 관여하고 있는 친우에게 사위를 추천해달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부유한 집안에서 능력 있고 현명한 사위를 고르고 싶기는 한데, 인맥이 적다 보니 인물을 알 수 있는 범위도 좁기에 믿을만한 다른 사람의 안목에 기대어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타인의 안목에 기대어 사위를 고르게 되다 보니, 이러저러한 풍문에 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정은 사위를 고를 때 직접 보고서 자신의 딸에게 맞는 인물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소문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중매자이다. 여기서 중매자 황안은 이정의 어리석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인물이었다면, 황안은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중매자로서의 황안의 농간과 예비장인으로서의 이정의 행태는 중국번안소설 <쌍신랑전><sup>12)</sup>과 비교해 볼만하다. <쌍신랑전>은 <금고기관>에 수록된

---

12) <弄假成真 쌍신랑>은 덕흥서림(德興書林)에서 출간된 것으로, 『醒世恒言』 제7화이자 『今古奇觀』 제27화 <錢秀才錯占鳳凰儔>의 번안이다. 대창서원(大昌書院)·보급서관(普及書館)에서 大正 11년(1922)에 출간된 <전수재전>보다 개작이 많이 되었으며, 이는 중국소설의 한국적 변용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쌍신랑전> 역시 혼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간악하고 비루한 인물이 미색을 갖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외모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을 당사자 대신 꾸며 보내었다가 결국 외모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고, 간악하고 비루한 인물은 평범한 여자를 배필로 맞이하는 양상을

<錢秀才錯占鳳凰儔>의 번안인데, 내용이 혼사진행도중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 한 명의 외동딸에 두 명의 신랑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권장군전>과 비교가능하다고 본다.

예비 장인 장씨는 중매자의 말만 믿고 딸의 백년가약을 정할 정도로 경망스럽지는 않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사위를 확인하러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했어도 간악한 사람의 꾀에 당하고 만다. 간악한 인물은 중매자를 통해 실제로는 인물 좋은 사람을 대신 선을 보여 예비 장인의 마음에 들도록 계락을 꾸며내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 당일에도 대역을 보냄으로써 장인 될 집안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다. 즉, <쌍신랑전>은 예비 장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인물의 계략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권장군전>의 이정은 외동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뿐, 남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고, 판단을 번복하는 등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위세가 떨어진 예비 장인 이정에게 황안은 중매인으로서의 농간을 부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농락당하며 위세가 떨어진 예비장인의 면모는 혼삿날 최고조에 이른다. <권장군전>에서 권훤이 혼례 전날 밤 이소저 침소에 잠입하여 하룻밤을 지낸 것을 이정에게 알리기까지 상황은 의외로 엉뚱하게 전개된다. 이전까지 아무런 신체적 문제가 서술된 바 없던 이정은 갑자기 원래 ‘귀머거리’ 병증이 있었다고 서술되면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엉뚱한 문답을 주고 받아 폭소를 터뜨린다.

작품 전반부에는 전혀 언급도 없다가, 후반부 절정에 와서는 이정이 귀머씨는 병이 있다고 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포복절도할 정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 노복은 계속해서 소저 침소에 변이 났다, 권랑이 잠입하였다고 이야기를 해대도, 이정은 ‘도적이 들었나’, ‘신랑이 죽었나’와 같이 전혀 판소리를 해댄다. 결국 노복은 더 말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고는 가만히 있고,

---

보이고 있다. 『금고기관』은 조선시대 때 널리 읽혔던 이야기책으로, 『금고기관』 소재 <전수제작점봉회주>는 <권장군전>의 서사적 특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정은 크게 화가 나서 노복을 꾸짖고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과 문답을 나눈다. 그렇지만, 앞에서 귀 먹고 다른 소리를 해댔던 이정이 부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부인의 말은 약간 알아듣는데, 영 못 알아듣느니만 못하다. ‘딸을 낳아서 이런 변을 보는가’라는 부인의 말에 ‘딸 낳은 어미, 혼사일에 바쁜 것이 당연하지’라고 대꾸하고, ‘권랑이 빙성당에 들어왔다’고 하니, ‘권랑의 인물됨이 딸과 방불한들 이제 와서 어찌겠는가’라고 답하여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한다. 재미있게도 부인이 귀먹은 것을 홍보하니, 그것만은 잘 알아듣고 버럭 화를 낸다. 이 희극적 상황은 조카에게 글을 써서 보여줌으로써 종결되나, 이미 장상을 지내고 황해도를 덕으로 다스린 이정의 진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커녕, ‘병신’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쌍신랑전>에서도 장인의 위세는 초라하다. 장인 장씨는 자신이 바라던 바대로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지만, 장인의 위세는 추락한다. 한 집안의 혼사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자가 외부 인물이 됨으로써 더 이상 가부장으로서의 위치보다는 법을 주관하는 힘의 위치가 강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권장군전>에서 장인이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 사위를 맞은 것과는 현격한 위세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권장군전>에서는 이정이 귀머거리 증세로 한순간 회화의 대상이 되었지만, 곧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중 사람들과 의논하여 권훈을 사위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비록 이소저의 혼인 과정에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천추의 한을 만들어낼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들 관계를 승인하여 줌으로써 다시 가부장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정은 권훈을 상대로 하여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느긋함을 다시 가지게 된 반면, <쌍신랑전>에서 장택서는 최응환이 자신의 딸을 박대할까봐 잘못을 책하지도 못할 정도로 위상이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장군전>에서 이정의 위상 하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설사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선악구도의 약화

<권장군전>은 무엇보다도 선악대결이 약화되면서 지혜로운 인물이 승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권훈은 학업을 열심히 하고, 외모와 풍채가 남들보다 뛰어날 뿐이다. 일종의 영웅적 면모가 있는 인물일 뿐, 특별히 선(善)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인물은 아니다.

권훈은 백년가약을 위해, 그리고 ‘천정연’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설령 그 행동이 남의 치소를 받을지언정 말이다. 권훈은 신붓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판국에 일단 곰곰이 고민하며, 앞으로의 일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 꿈속에서 율하노인의 ‘천정연’을 제시하여 권훈의 행동양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권훈이 피병을 부리며 이정이 마련해준 처소에 머무른 것은 이미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정연 때문에만 권훈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권훈이 계약의 대상으로 선택한 인물은 혼인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예비장인이 아니라, 그 딸인 이소저이다. 이소저에게 편지를 통해 권훈은 남자에게 중요한 충효와 여자에게 중요한 신의를 언급하면서 사대부가의 딸로서 신의를 잃게 된 이소저의 상황을 창가의 여자에 비유하면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혼례를 치루지는 않았어도 납폐를 행한 이상 이소저는 권씨 집안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리려고 준비 중이니 그런 행동은 창녀라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생은 들으니 큰 예는 조그마한 예절을 꺼리지 아니하고 큰 행실은 작은 예를 허하지 아니한다 하니 청춘이 두 번 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기약은 얻기 어려우니, 후일 누우치나 미치지 못하리니 담을 넘기는 군자의 할 바 아니나, 어찌 조그만 예를 생각하여 백년 대사를 그르치리오. 바라노니 소저는 세 번 생각하여 아녀자의 태를 하지 마시고, 관저의 낙을 맺으소서. 바야흐로 달이 지고 바람이 고요한지라. 한번 나아가 심회를 전한 후 행할 때를 기다리려 하

나이다. 모년 모월에 남양 권훈은 이소저 눈앞에 공경하여 올리니이다.

이렇듯 배필이 다른 사람에게 출가하게 된 상황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편, 만드시 자신에게 출가해야하는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편지 배달 역할을 했던 동자를 통해 이소저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본격적으로 나서서 한밤중에 아이에게 그 화려한 이정의 집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아쉽다고 하면서 근처 동산을 구경시켜달라고 한다. 은근히 이소저의 처소를 알아낸 권훈은 이제는 잠을 자야겠다고 말하며 아이를 돌려보내고는 담장을 뛰어넘어 이소저의 처소에 도달한다. 얼마쯤 지나 이소저 방안으로 들어가 이소저에게 절을 하고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소저가 예를 언급하며 나가줄 것을 부탁하지만, 권훈은 한번 남들의 비웃음을 받더라도 백년대사를 그르칠 수 없다며 이소저와 하룻밤을 지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비 장모가 방문을 열자 옷을 단정히 하고는 ‘사위 인사 올리 나이다.’하고 넉살 좋게 아침 인사를 한다.

<권장군전>에서 권훈과 이소저 모두 ‘正道’와 ‘禮’를 이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正道’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 않다. 이른 바 ‘權道’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고전소설에서 ‘권도’는 비밀비재하다.<sup>13)</sup> 이소저가 권훈의 편지를 읽어보고,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들어온 권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식된 도리로서 보자면 불효가 된다. 하지만, 권훈이 원래 정혼자였기 때문에 당시 유교적 관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권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고, 권훈을 물리치게 된다면 지아비를 좇는 도리를 따를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권훈의 행동은 엄격히 말해 ‘권도’로서만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권훈의 논리는 한번 사람들의 조소를 당할지언정 백년가약할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심각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권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3) 정병설은 고전소설에서 유교적 윤리가 충돌하는 상황들에서 주인공들이 선택하는 ‘권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쌍신랑전>에서도 그나마 긍정적 인물로 나오는 최응환은 인물 좋고 행동도 훌륭하며, 학업적 능력도 뛰어나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사촌인 손길성의 악행을 돕는다. 일종의 협조자라고 할 수 있다. 최응환의 옳지 못한 협조는 급기야 손길성의 혼사에까지 이어진다. 손길성이 수소문 끝에 장필애라는 여인이 절세미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최응환을 대역으로 내세워 장소저를 취하고자 하는데, 최응환이 그러한 악행에까지 협조한다. 초례 후 어떻게 해서든지 신부를 데리고 한강을 건너가 손길성에게 인도하려고 노력하며, 비바람이 몰아쳐 강을 건널 수 없어 초례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배얇이 핑계를 대기도 하는 등 3일 밤 동안 신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신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잠도 안 잔다. 신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 있겠지만 역시 악인의 계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의를 지킨 것이기에 문제적이다. 최응환은 처음에는 꺼려하며 거부하다가도 일단 시작하면 그야말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손길성의 악행을 돕고 있다. 뒤에 군수에 의해서도 지적되지만,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윤리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고 꾸중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전개 속에서 최응환은 인물과 능력이 뛰어난 뿐이지 선한 인물이나 군자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최응환은 천하절색의 미녀를 얻게 된다. 그 이유는 최응환의 인물과 학문적 재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씨는 손길성의 추후함을 비난하며, 최응환의 협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만, 그래도 최응환의 인물과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응환을 사위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렇듯 그나마 긍정적 인물들인 권훈과 최응환이 모두 선한 행동은커녕 ‘예(禮)’가 아닌 행동을 하고, 최응환은 악한 계략에 협조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아름다운 신부를 얻어 백년해로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결국 이 작품이 도덕적 정당성보다는 한 개인의 재치, 지혜, 품모 등을 더욱 우선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악한 행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어떠한 행로를 보일까? 혼사를 훼손하려 하였던 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므로 악에 대한 징



치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작품의 서술자는 권선징악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족한 인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권훈과 대척점에 있었던 홍현경은 실제로 어떠한 추악한 행동도 하지 않지만, 권훈과 비교해보았을 때 용모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홍현경은 혼례 당일, 이소저가 병으로 누웠다는 전갈만 받았다가 수소문한 결과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서 무척이나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간다. 참으로 불쌍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서술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방하지 않는다.

이렇듯 권선징악적 차원이 아닌 용모나 재능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쌍신랑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악행을 저질렀던 손길성 또한 처벌을 받지 않고, 원래 혼약했던 정소저와 혼인하게 되고, 나중에 개과천선하여 모친을 잘 모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게 되어 인과응보와 상당히 동떨어진 결말구조라고 할 수 있다. <쌍신랑전>의 원본인 <전수재착점 봉화주>에서는 악행을 저질렀던 안준이 매를 맞음으로써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쌍신랑전>에서는 오히려 짝지어 맺어주는 개작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도덕적 교훈 및 교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쌍신랑전>에서 간교한 꾀를 내었던 손길성은 많이 배우지 못해 우둔한 탓으로 용서 받고, 이후 마음에 딱 드는 여자와 혼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각도 늘고, 모친의 훈계도 듣고 정소저와 화락하며 지내었다고 하니, 전혀 권선징악적 차원에서 논할 수가 없게 된다. 손길성의 간교한 꾀를 도왔던 최응환은 그 부득이한 신세, 즉 부모가 구물하여 고모에게 의탁하고 있었던 가련한 신세였다는 점에서 용서받고 천하 절색 미녀와의 혼사를 성취한다.

권훈과 홍현의 혼인 성공 여부는 인물이 흰칠하고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여자는 그 미모와 집안의 부유함으로 인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현경은 인물이 추루하고 재능이 없는 것으로 서술된 반면, 권훈은 풍채가 준수한 미남자로 형용되면서 극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점들이 미모와 현숙함을 겸비한 여성과의 결혼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전소설에서 풍채 준수하고 재모가 있는 남자 주인공이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이지만, 이렇듯 군자나 선인(善人)으로서의 면모 없이 외양과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향유층의 의식

이야기의 중심화제 자체가 이정의 외동딸을 위한 사위 구하기와 그 사위의 재력을 통한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얻기에 있음은 서사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필사자 및 향유층이 여성이었음을 보여주는 필사기가 3종의 이본에서 발견된다. 먼저, <양신랑전>은 ‘정소저의 필작’으로 밝히고 있으며, <권홍랑전>은 ‘임부인’이 기록한 것으로 밝히며, <양랑전>은 ‘박소저’가 필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필사기를 통해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향유한 사람들이 여성이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책 내용은 필사자가 밝힌 대로 교양이 될 만한 것은 없다. 권선징악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를 행했던 남자주인공은 과거에 급제하여 대공을 세움으로써 영웅이 되고, 이들 부부는 백년해로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작품이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일까? <권장군전>과 <권홍랑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권장군전>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이소저의 행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편지를 받아 보게 되는 장면에서 <권장군전>의 이소저는 뿌리치며 읽어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동자의 간청에 못이겨 읽는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권홍랑전>에서는 ‘내심 기뻐하며’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이소저의 예에 구속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이 두 이본간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장군전>은 상당히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저의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 외간 남자의 편지를 뿌리치고, 사촌 동생의 권유가 있고 나서야 읽는 부분, 권훤이 인사를 올리자 창문을 닫으려 한 행동, 초례날 밤 갈등요소를 표출하고 해결한 부분 등은 모두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를 굳게 지키려 했던 여성의 표본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소저가 편지를 냉큼 받아보는 것은 사대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술자는 이를 분명히 인식했고, 이 때문에 아이를 꾸짖는 장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권홍량전>에서는 아이를 꾸짖되 이소저의 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고, 이는 필사자가 그러한 ‘예’에 구속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식은 필사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책이 유식하지는 못하지만 적절한 때 한번 보고 웃을 만하기로 임부인이 짧은 글지식과 서투른 글씨로 대강 기록하니 여러 부인들은 한 번 보시라. 글씨 못썼다고 책하지는 말아 주시오.

갑인 윤월 구일 야 임부인 필서(畢書)라. <권홍량전>

위의 필사기는 양반가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 중에 <권홍량전>과 같이 ‘재미’만을 목적으로 한 소설들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임부인은 필사를 마치고 나서 말미에 쓰기를 ‘여러 부인들은 한 번 보시라’고 하였다. 한 여성이 소설을 기록하여 여러 부인네들과 함께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처럼 <권홍량전>은 여성들에 의해 향유되는 것을 목적으로 심심과적용으로 향유되었으며, 웃고 즐기기 위해 필사되었던 소설이다. 즉, 어떠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갈등은 단발마적이며, 희극적 상황으로 변이되거나 큰 문제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소되고 만다. <권홍량전>의 필사자는 소설이라는 것이 교훈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읽을 만하고, 필사해서 남들에게도 읽힐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작품 내용과 여러 여성의 필사기를 토대로 <권장군전>은 규방의 여성들이 향유했던 규방소설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7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부녀자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은 <소현성

14) <권홍양인전>의 책주인 또한 여성으로 여겨진다. <권홍양인전> 또한 ‘冊主人許小悌’라고 되어 있어 여성일 것으로 여겨진다. 책 중간 중간에 소저를 소제라고 쓰는 필사자의 습관 등으로 미루어 보아 ‘小悌’는 공경하는 작은 동생, 그 중에서도 여자 동생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에서도 글씨에 대해 허물삼지 말라는 상투적 표현이 부기되어 있다.

록>,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유씨삼대록>, <원월회맹연> 등의 장편 소설이 중심이었다.<sup>15)</sup> 규방소설로도 언급되는 이들 고전소설들은 여성 독자들에게 교양서와 수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설에 대한 긍정론과 배격론 사이에서 소설은 자연스럽게 재미보다는 윤리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sup>16)</sup> 이에 따라 ‘얼마나 독자들에게 도덕적 감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런데 <권장군전>에 남아 있는 필사기는 ‘재미’를 중시하는 부녀자들의 향유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권장군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또 다른 규방소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당대 향유자에게 있어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 척도가 부유함이었다는 것이다. <권장군전>에서 이정이 벼슬에서 물러나 가업에 힘쓰으로써 부유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처음 권씨 집안과 혼담이 오갈 때 권장군이 그 집안의 가세를 묻는 부분, 이정의 집이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동자의 발언, 횡안이 그 혼사를 시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 집안의 ‘부유함’ 때문인 점 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정은 권력가로서의 모습보다도 부유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보다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필사자는 끊임없이 그 권세보다도 부유한 가산의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어서 더 이상 권력이 가치 척도가 아닌 경제적 풍요가 가치 척도가 된 세상을 엿보여주고 있다.

<쌍신랑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락을 주도하는 손길성은 부친 덕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가 피를 내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경제적 부유함이다. 이러한 생각은 서술자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가세가 부요하면 신세도 편안하다 즐거움이 만코 그리움이 업시 잘입고 잘먹고 잘놀고 잘자느”이라고 말하며 가세가 부요한 것이 곧 신세의 편안함과 즐거

15)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정병설, 「원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6)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움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손길성의 정혼자였던 여자가 혼인하게 되는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서술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부유함에 대한 소망과 긍정적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최기숙은 18세기 19세기 야담에 나타난 ‘부(富)’에 대해 선망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권장군전> 또한 이러한 의식과 흐름을 같이 하는 소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 V. 결 론

<권장군전>은 혼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는 작품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설 향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6종의 이본 중 <권장군전>이 작품 서술 면에서 가장 꾀진한 양상을 보여주는 선본(善本)임을 밝히면서, 서사적 특징과 향유층 의식을 분석하였다.

<권장군전>은 예비 장인의 위세 하락과 지혜로운 인물의 부각을 서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악대결이 약화된 상황에서 뛰어난 재능과 외모를 지닌 남주인공의 존재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 지혜로운 인물이 소설 내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본 검토를 통해 <권장군전>이 다른 이본에 비해 좀더 유교적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권홍량전>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생동감 있는 인물을 그려내면서 ‘재미’를 표방한 작품임을 필사기를 통해 밝혀내었다. <권홍량전>은 여전히 ‘열녀불경이부’와 같은 유교적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 있지만, <권장군전>에 강하게 남아 있던 도덕적 절치를 일부 제거하고, 이소저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시대적 변모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게다가 필사기는 이 소설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면서 웃을 만하기로 필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성 향유층의 소설탐독의 방향이 ‘재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

17) 최기숙, 『돈의 표상성 :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 261~295면).

있었다.

<권장군전>은 권선징악적 요소보다 ‘지혜(능력)’와 ‘외모’를 중시하면서 ‘부’에 대한 선망 의식을 반영하고 이를 골격적 구도 속에서 전개시킴으로써 이와 유사한 소재를 가진 중국번안소설 <쌍신랑전>과 함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고전소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 <권신랑전>, 박순호 소장(한글필사본고소설총서 제3권).  
<권장군전>,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양신랑전>, 단국대학교 퇴계도서관 소장.  
<권홍양인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권홍랑전>,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소장.  
<양랑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馮夢龍, <醒世恒言>, 규장각 소장.  
馮夢龍, <今古奇觀>, 규장각 소장.  
玄公廉, <전수재전>, 대창서원·보급서관, 19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金東縉, <쌍신랑전>, 덕흥서림, 1930, 방민호 소장.

### [연구논저]

-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종균, 『남녀애정결연서사연구』, 박이정, 2005.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박희병 역), 한길사, 1997.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제26집, 한국 문학회, 2000.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설성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손병국,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화본소설의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 단위담의 전개양상과 결합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신동일, 「한국소설에 미친 명대 단편소설의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유연환, 「한국고전변안소설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유재일, 「<양신랑전> 해제」, 『열상고전연구』 창간호, 열상고전연구회, 1988.  
이명구, 「三言·二拍과 韓日文學」, 『아시아문화』 1집,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 1985.

-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 \_\_\_\_\_,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 \_\_\_\_\_,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조희웅, 「낙선재분 번역소설연구」, 『국어국문학』 62·63호, 국어국문학회, 1973.
- 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下)』, 박이정, 2006.
- 최기숙, 「돈의 표상성 : 18·19세기 경제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고소설 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